

해수욕장 144만명 입장, 정말 맞아?

도, 울여름 해수욕장 이용객 수 ‘추정법’으로 집계
중문 4만→보름 뒤 11만명… 주민들 “신뢰도 의문”
“통신사 연계 앱 개발 등 보다 정확한 집계 구상 중”

제주도가 울여름 도내 12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144만 명을 넘기는 등 전년보다 27.7% 증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추정법’으로 방문객을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 조사 방식은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 기준(안)’을 참고했다. 기준안에는 전수 조사 또는 무인 계측법을 사용해 통계를 작성하되 사정에 의해 두 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추정법에 의한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제주는 추정법 중에서 해수욕장 지정·고시 구역에 대상으로 12개 표본 구역의 체류 인원을 집계해 일일 이용객을 추정하는 표본 조사를 택했다.

이에 근거해 방문객을 집계한 제주도는 지난 6월 말 조기 개장 후

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34만여 명이 늘어난 총 144만8500명이 해수욕장을 찾았다고 홍보했다. 이중 6월 24일 개장 후 8월 13일까지 50만5964명이던 함덕해수욕장 이용객은 폐장일인 8월 31일 기준 70만3064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중문색달해수욕장 이용객은 6월 30일 개장 후 8월 13일 기준 4만780명에서 8월 31일에는 11만880명으로 7만 명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보름 남짓한 기간에 방문객이 급증한 일부 사례를 두고 집계 방식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주민은 지난달 중순에 “해수욕장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중문해수욕장에 가보면 주차장에 차량이 안 보이고 매

점에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4만 명이 왔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이용객 수치는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규모, 방문객 확대 홍보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함덕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반려견 동반 시범 운영 등 대중성과 접근성이 좋아 피서철 막바지에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중문색달은 서퍼 이용객들이 많아서 이안류가 없는 시기에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해수욕장 방문객을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대신에 2023년부터 해수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본 조사 지역을 지정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 인원을 반영해 최종 이용객 수를 추정한 왔다”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통신사와 연계한 해수욕장 플랫폼 앱 개발 등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집수리 본격

제주시, 10월 중 일도2동 노후주택 35가구 리모델링

제주시는 일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노후 주택 정비 집수리 지원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에 앞서 지난 8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35가구를 선정했다.

일도2동 991-38번지 일원에서 추

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두문이골목 특화, 방문자 편의시설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집수리 지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 35가구에 대해 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해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지붕, 담장, 대문, 옥상, 벽면 등 주택 외부 경관 개선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오는 6일 ‘서귀포과학문화축전’ 개최

서귀포시는 ‘2025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을 오는 6일(오후 2~10시) 서귀포천과학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와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축전에는 관내 13개 초·중·고등학교와 한국천문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

주과학문화협회, 내셔널지오그래픽, 제주안전교육센터 등 도내 과학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과학체험 부스에서부터 과학미술공연, 로봇공연, 천체사진전시회,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과학체험 부스에서는 ▷에어로

켓 발사 ▷거북선이 만든 전기불꽃 ▷공존탐험가의 나무목걸이 ▷디폼블럭 키링 만들기 ▷플리피 로봇 ▷침성대 만들기 ▷오토마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과학미술공연과 로봇공연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가족·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눗방울 체험과 과학부채 만들기 가 과학 이벤트로 마련된다. 문의전화 739-9701~2, 문미숙기자

2025 제주愛 빠지다 제주 이주 N년차 이야기 9 왕준호 노리장이앤꼬까나무 대표

“제주는 놀이·생태·인문학이 풍부한 곳”

동심과 호기심, 배움의 열정은 나이와 무관하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제주에서 놀이와 생태, 인문학을 통해 서로 교감하며 지내는 이주민 왕준호(57) 대표의 삶, 그 자체다.

놀이연구소 꼬까놀이 대표이자, (주)노리장이앤꼬까나무 공동대표인 그는 2021년 3월 지인의 권유로 제주살이를 시작했고 점차 매료돼 정착을 결심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6살부터 이어졌던 오랜 서울 생활을 접고 제주행을 택했다.

“당시 서귀포시 남원에 정착해 1년만 제주에서 살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바라본 제주는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인 생태, 놀이, 인문학 등이 풍부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곳임을 깨달았죠.”

그는 남원에서 느꼈던 제주 자연에 매료되며 2021년 10월 제주 정착을 결정했고 이제는 ‘제주에 찬론자’가 됐다. “제주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라고 말할 정도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과 끊임없이 어깨를 도는 밤바다의 파도소리… 힘겨웠던 도시생활을 위로받기에 충분했다고 회고했다.

때문에 낯선 제주어와 음식, 문화 차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숲해설가이자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청의 국가자격증 3개를 모두 딸 정도로 자연 분야에 진심인 그였다. 제주 정착 초반, 사려니숲길 유아숲놀이터에서 곧바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 안정감을 주며 제주 정착에 분명 도움이 됐다. 그는 “제주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들 하는데 찾아보면 지천”이라고 말한다.

“주중에는 제주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대학교, 경로당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을



왕준호 대표는 “제주는 생태와 놀이, 인문학이 풍부한 곳”이라 예찬한다.

오랜 도시생활 접고 정착… 제주 자연·생태에 매료
제주말 배우고 서울 등 오가며 제주 전래놀이 전파
“타지역 문화 융합한 새로운 문화 나무로 성장할 것”

대상으로 생태, 놀이, 인문학 교유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낙동배기(웃놀이), 할망놀이, 안경놀이 등 제주놀이를 주제로 강의를 하죠. 내년 2월까지 스케줄이 꽉 찬 상태예요.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배움에 대한 호기심도 대단하다. 유네스코 소멸위기언어인 제주어는 물론 신화, 역사·문화, 음식, 물 등 제주와 관련된 것은 모두 배움이 대상이고, 강의 주제다. 된장냉국, 호박임국을 좋아하고 씬다리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그다. 여기에 한국산악회 등반가이드, 제주그림책연구회, 제주어린이도서관연구회, 제주강사네(강사 모임)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제주 정착에는 현재 노리장이앤꼬까나무 공동대표인 김남희(48·여) 대표의 역할도 한몫

했다. 제주 정착 14년 차인 김 대표는 제주 자연, 생태, 인문학 등 왕 대표와의 ‘공통분모’가 유효해 정착 시점인 2021년 10월 의 기투합해 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전래·공동체·세계놀이(이주배경 다문화가구 대상) ▷유치원부터 대학생 대상 숲생태프로그램 ▷어르신(도내 15개 경로당) 대상 ‘뉴 스포츠 즐기자 터링’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숲생태전래놀이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 빠르게 뿌리를 내린 그는 “진정한 제주사람이 되고 싶다. 타지역이 제주 속에서, 제주 문화속에서 타지역 문화와 융합한 새로운 문화의 나무로 성장하고 싶다”고 했다. 섬 없는 제주사랑의 결실을 맺는 성목이 되겠다는 포부다. 잘 노는 사람인 ‘노리장이’와 꽃과 나무를 그대로 읽은 ‘꼬까나무’의 의미를 제대로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